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23일 (음력 12월 7일) 화요일

“광주·전남 지자체, 기업 리쇼어링 대비해야”

한국은행 연구팀 기업 유치 연구자료 발표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 조사역과 문제점 과정은 22일 배포한 연구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혁신으로 생산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자국 생산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돼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 생산혁신 자국 생산 유리”

“고급일자리 창출·기업수익 발생 따른 지방재정 증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산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필요”

리쇼어링은 값싼 인건비 등을 이유로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 생산설비를 이전한

기업이 자국의 규제 완화와 가격 경쟁력 상승 등에 따라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하거나 복귀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중소기업 88개이며, 이 중 광주·전남으로 복귀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1개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삼삼전자와 동부대우전자, 기아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해외에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리쇼어링이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청·협력업체의 동반 이동에 따른 고용창출, 기업수익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 증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광주·전남지역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전, 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리쇼어링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대학과 산·학 연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10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 소비자가 22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0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를 모아놓은 코너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설은 부정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코웃음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恨)을 풀이해 주고 있다. 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홍대표는) 어떻게 사법시험 합격했는지 의문 이라고 고백했다. 홍대표는 지난 16일 최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조 수석을 겨냥, “사법시험 통과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 분골이 권력기관 개혁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 시장은 홍 대표에게 제10대 대표의 체신을 지키시라 비판다며 홍 대표의 발언을 무집은 내용의 글을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다. 그는 “노어 국정원의 불법댓글과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도 구분 못하는 홍 대표가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것. 홍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향해 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조 수석이 사법시험 합격 못한 한 풀이해...

홍준표



그럼 당신은 권력 잃은 한 풀이해...

이재명



사시? 같잖아...

조국

최남규 기자

“‘임 행진곡’ 교향곡 제작...세계적 명곡 될 수 있는 기틀”

김종률 작곡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 소식 환영”

“5·18정신이 담겨있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적인 곡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교향곡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김종률 작곡가는 22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틀이 마련된 것 같다”며 환영했다.

광주문화재단은 5·18의 노래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세계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첫번째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향곡으로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가칭) 제작위원회를 구성해 3월부터 작곡가 선임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향곡을 바탕으로 뮤지컬 제작에 이어 홀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로 재생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김 작곡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37주기 기념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월 광주정신의 피와 혼이 담겨 있는 노래이다”라고 했다며 “5월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노래이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성과 사연이 담겨 있는 노래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초를 겪어 안타까웠다”며 “교향곡 작업을 통해 광주

만의 노래가 아닌 세계적으로 불려지는 곡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적으로 발전한다면 노래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며 “좋은 콘텐츠로 제작돼 세계화로 나아가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부터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는 방식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국론 분열 우려 방침’에 따라 합창 형식(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름)으로 변경돼 5월 등 시민사회는 강력 반발했으며 9년만인 지난해 열린 37주기 기념식에서 다시 제창했다

최남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